

삼성전자, 반도체 호황으로 최고 수익

1/4분기 영업이익 643% 늘어 4조4100억원 ... 매출액은 34조6400억원

삼성전자가 전자업계의 비수기로 분류되는 1/4분기에 반도체 시장 호황에 힘입어 역대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.

삼성전자는 2010년 1/4분기에 국제회계기준(IFRS)에 따른 연결기준으로 34조6400억원의 매출에 4조41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4월30일 발표했다.

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1% 늘었지만, 전기대비로는 12% 줄었다.

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643%, 전기대비로는 28% 급증하면서 지금까지 역대 최대 분기실적이었던 2009년 3/4분기(4조2300억원) 기록을 갱신했다.

1/4분기 영업실적 호조는 반도체 부문이 이끌고, LCD(Liquid Crystal Display)와 TV(디지털미디어) 부문이 뒷받침한 모양새로 나타났다.

스마트폰 분야에서 애플(Apple)의 아이폰(i-phone)에 밀리면서 위기론이 팽배했던 정보통신 부문도 비교적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을만한 것으로 확인됐다.

매출과 영업이익에서 1/4분기부터 궤조의 출발을 보임에 따라 2010년에는 전체적으로 2009년에 수립한 사상 최대의 영업실적을 돌파할지 주목되고 있다.

증권가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3D LED(Light Emitting Diode) TV 등 주력사업의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2010년 매출 150조원에 영업이익 16조원 달성이 가능성을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4/30>